작품 내용

제목	보이지 않던 이름
내용	"사진 한 장만 쓰면 안 될까?" 몇 년 전의 나는 그런 생각을 아주 쉽게 했다. 과제를 하거나 발표 자료를 만들 때면 인터넷 검색창에 원하는 이미지를 입력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이 나오면 저장 버튼을 눌렀고, 필요한 곳에 붙여넣었다. 블로그 글을 쓸 때도, SNS에 글을 올릴 때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어쩌면 저작권이라는 단어를 몰랐던 것은 아니다. 학교에서도 배웠고 뉴스에서도 여러 번 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나와는 조금 먼 이야기라고 생각했다. 유명 가수의 노래를 불법으로 공유하거나 영화를 무단으로 배포하는 것 같은 큰 문제에만 해당하는 줄 알았다. 내가 사진 한 장을 사용하는 일은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다. 생각이 바뀌게 된 계기는 아주 우연한 일이었다. 어느 날 친구가 자신의 사진이 허락 없이 사용된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다. 친구는 취미로 사진을 찍는 사람이었다. 주말이면 카메라를 들고 다니며 꽃을 찍고, 풍경을 찍고, 노을을 찍었다. SNS에 올리는 사진 한 장에도 많은 시간을 들였다. 그 친구가 어느 날 내게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다. 직접 촬영한 사진이었는데 누군가가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인터넷 게시물에 사용하고 있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래도 네 사진이 예뻐서 가져다 쓴 거 아니야?" 그러자 친구는 잠시 웃더니 조용히 말했다. "그 사진 찍으려고 새벽 다섯 시에 일어났어."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친구는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 새벽 어둠 속을 걸어갔다고 했다. 원하는 빛을 기다렸고, 구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고, 수십 장을 찍은 끝에 겨우 한 장을 골랐다고 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색감을 보정하고 구도를 다듬는 데 또 시간을 썼다고 했다. 나는 그제야 사진을 사진으로만 보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진 뒤에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다. 그 사진이 만들어지기까지 들인 시간도, 노력도, 고민도 보지 못했다. 그 이후부터 나는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볼 때마다 조금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예전에는 "이 사진 예쁘다."에서 끝났다면 이제는 "누가 찍었을까?"를 먼저 떠올리게 되었다. 누군가는 추운 겨울에 손을 호호 불며 촬영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여행지에서 특별한 순간을 담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렸을 수도 있다. 한 장의 그림 역시 마찬가지다. 몇 시간, 몇 날 며칠을 고민하며 완성한 작품일 수 있다.

짧은 글 한 편도 마찬가지다. 누군가의 경험과 생각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그때부터 나는 작은 습관 하나를 만들었다.
사진을 사용할 때는 출처를 확인하기.
무료 사용이 가능한 자료인지 확인하기.
저작권 표시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표기하기.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은 규칙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사람을 존중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누군가의 이름을 기억하는 일.
그것이 저작권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창작물을 만난다. 음악을 듣고, 영상을 보고, 사진을 감상하고, 글을 읽는다. 그런데 너무 쉽게 소비하다 보면 그것들이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하지만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지는 작품은 없다.
누군가의 시간과 노력, 그리고 수많은 실패와 도전 끝에 탄생한다.
저작권은 단순히 법으로 정한 권리가 아니다.
창작자의 시간을 존중하는 약속이고, 노력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더 좋은 창작물이 계속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지켜주는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인터넷에는 수많은 사진과 영상, 글들이 올라온다.
클릭 한 번이면 저장할 수 있고, 복사 한 번이면 어디든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쉽다는 이유만으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편리함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존중이다.
예전의 나는 작품만 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작품 뒤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본다.
그리고 그 이름을 존중하는 마음이야말로 저작권을 지키는 가장 첫 번째 시작이라고 믿는다.